

한국과 카자흐스탄, 문화로 깊어지는 우정

-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 미래세대 공동 창작·제작 사업, 전통문화축제, 애니메이션 특별전, 김옥선 작가 특별 사진전 등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다큐멘터리와 전통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9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022년과 2023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한 ▲청년 다큐멘터리 공동 창작·제작 사업을 필두로 ▲한-카자흐스탄 전통문화축제, ▲한-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특별전, ▲청년연극 공동 창작·제작 사업, ▲김옥선 작가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

■ 7월~12월 청년 다큐멘터리 공동 창작·제작 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은 카자흐스탄 국립예술아카데미(Temirbek Zhurgenov Kazakh National Academy of Arts, KazNAA)*와 협력해 공동 다큐멘터리 창작·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디아스포라의 시간과 교차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부터 다큐멘터리 총 4편을 함께 창작·제작하고 있으며 6개월에 걸쳐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12월 상영회를 통해 양국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영상예술 분야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적 교류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955년 카자흐스탄 국립 음악원의 연극학부로 시작된 연극, 영화, 미술, 디자인 전문학교로 2001년 7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으로 지정됨

■ 9월 한-카자흐스탄 전통문화축제

양국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축제도 열린다. 9월 23일(토), 카자흐스탄 알마티 극장(Almaty Theatre)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판소리 명창, 카자흐스탄 전통악기 돔브라 연주자의 협연이 펼쳐진다. 양국의 전통 민요부터 카자흐스탄 국민 작곡가 예르케쉬 샤케예프 (Yerkesh Shakeyev)의 클래식곡,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국악기로 재해석해 양국의 우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 9월~10월 한-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특별전

9월과 10월에는 한국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국제단편영화제(BAIQONYR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가 협력해 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상호 개최한다. 먼저 9월 8일(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마련해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성강 감독의 ‘프린세스 아야’,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기대주 임채린 감독의 ‘나는 말이다’를 포함한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 총 12편을 소개한다. 또한 이성강 감독과 임채린 감독의 특별강의, ‘프린세스 아야’의 주인공 ‘아야’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주제가를 부른 가수 백아연 씨의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10월 21일(토), ‘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특별전’이 열린다. ‘오르케스(Orkesh)’로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경쟁 부문 선정 등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이반 아르다쇼프(Ivan Ardashov) 감독의 장편 ‘어느 소녀의 모험(Kenje Kyz)’과, 교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예 감독 아니타 체르니크(Anita Chernykh)의 단편 ‘무방비 소년(On thin ice)’ 등 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총 9편을 상영한다. 바이코누르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카자흐스탄 장·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한국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의 역사도 소개할 예정이다.

■ 11월 청년연극 공동 창작·제작사업 추진

연극 분야에서도 양국의 미래세대 간 지속 가능한 창작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진흥원은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과 함께 연극공연 작품을 개발한다. 양국 청년들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서 기념주화로도 발행된 적 있는 ‘단군’을 소재로 공연을 창작·제작해 11월 11일(토)과 12일(일), 카자흐스탄 국·공립극장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양국 배우들이 한국어와 카자흐어, 러시아어로 연기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발한 작품은 향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지속 상영한다.

*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Korean State Academy Theatre):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의 역사를 상징하는 극장. 1932년 러시아에서 창립되어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함. 2016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통령(Nursultan Abishuly Nazarbayev)이 고려극장을 직접 언급하며 최고 권위인 ‘아카데미’ 칭호를 부여함.

■ 11월~12월 김옥선 작가 특별 사진전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인 카스티예브 국립예술박물관(A. Kasteyev State Museum of Ar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서는 11월 14일(화)부터 12월 8일(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사진작가 김옥선의 개인전이 열린다.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의 삶에 담긴 개인적 서사와 그 이면의 시대사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지구를 이동하는 다양한 이주자들의 모습을 통해 구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서부터 오늘날 문화와 산업적 수요에 의한 자발적 이동까지 현대사를 관통해온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이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연·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는 만큼 더욱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홍보 이미지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3-257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2022-2023
한 - 카자흐스탄
상호문화교류의 해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KAZ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2022-2023 -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 мен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арасында мәдени алмасу жылы

